

# 컨테이너 항로 잇단 폐쇄…목포신항 존립 위기

화물 없어 5곳중 4곳 운항 중단

처리물량 작년 절반으로 떨어져

지난 2004년 개장한 목포신항이 잇따른 컨테이너 항로 폐쇄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일 (주)목포신항만에 따르면 목포신항은 민·관 물류유치 노력으로 일본·태국·인도네시아·일본 동안(東岸)·중국 대풍~상해 등 5개 컨테이너 항로로 확대됐지만, 지역 물류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5개 항로 가운데 일본과 중국, 동남아 항로는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잠정 중단됐고, 부산~일본 도쿄~요코하마~시바를 운항하는 1개 항로만

운영되고 있지만 이마저 언제 중단될지 모를 최악의 상황이다.

특히 목포신항의 전체 환적 화물 가운데 60%를 차지하고 있는 양해해운이 지난 14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지속적인 취항이 어려운 상태다.

이처럼 항로 폐쇄로 컨테이너 처리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인 8000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로 떨어졌다. 수년간 공을 들여 목포신항으로 유치한 삼성전자의 수출물량이 다른 항만으로 선적항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장 신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정홍만 신항만 대표는 “컨테이너 항로가 늘어나면서 군산항에서 빌려온 ‘센트리 크레인’(Gentry Crain·일

백색 가전제품 일부를 지난 2월부터 목포 신항을 통해 1주일에 50TEU(20피트 컨테이너)씩 수출해왔다.

이에 앞서 목포항만청은 지난 3월 신항부두내에 한영산업의 플랜트시설이 들어서면서 분진 피해로 신항의 주력화물인 기아자동차 수출차량이 다른 항만으로 선적항을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공장 신축허가를 불허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어 “선박 메기블록, 골리앗 크레인, 해양 플랜트 등을 생산해 국내 관련기업 및 호주, 유럽 등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유치했지만 허가 문제로 좌절됐다”면서 “현지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환적화물도 줄어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친절 서비스로 별교 경제 살리자

별교읍번영회 상가·식당가 순회 캠페인

보성군 별교읍번영회(회장 강복수)는 지난 16일 별교읍 기관·사회봉사단체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별교읍내 농·수산물 판매상과 식당가를 중심으로 별교 경제 살리기 및 친절 서비스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별교 학교 광장을 비롯한 각종 농·수산물 등을 맛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행락객에게 보다 깨끗하고 산뜻한 별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별교가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별교읍 번영회원들은 이날 ▲신선

한 상품 판매와 정량·정품 판매 ▲정확한 원산지 표시 ▲바가지요금 균질 ▲정성과 친절 생활화 ▲최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단지 4000부를 나눠주면서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강복수 별교번영회장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상품 애용, 거리질서 확립, 깨끗한 환경보전 등 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주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내 고장 사랑실천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백운산 ‘氣와 숲 체험’** 광양시민과 등산 애호가들이 지난 18일 백운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 ‘기(氣)와 숲 체험’에 참여해 기체조를 하고 있다. 백운산권의 명소화와 새로운 장소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시 제공)

## 여수시-中남방향공사 박람회 홍보 협약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중국 관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여수시와 중국 남방항공사 한국지사(지사장 허우명)는 20일 시청에서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 및 전세기 운항 등 항공업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중국 남방항공은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69개국 905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객 운송량은 아시아 1위, 세계 4위의 항공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국 남방항공에서는 정기노선 주 104회 왕복하는 기준 한·중노선 이용자들을 여수박람회로 적극 유치하도록



록 홍보하고, 여수시와 항저우·샤오싱·양저우 등 여수의 교류 도시들 간 전세기기를 운항한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지난 3월 중국 국제항공 한국지점과의 항공업무 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남방항공과의 업무협약이 성사돼 여수박람회 성공개최에 또 한 걸음 다가섰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전남도 주민주도형 행복마을 12곳 선정

### 한옥 신축·마을 정비 지원…8월부터 사업 착수

전남도가 올 하반기에 추진할 행복마을로 신안군 임자면 진리마을 등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행복마을 선정위원회에서 마을 예선과 사업계획서, 주민참여도 및 추진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주민주도형 행복마을 12곳을 선정됐다.

선정된 마을은 ▲신안군 임자면 진리마을 ▲담양군 월산면 달뫼마을 ▲진도군 조도면 돌목마을 ▲장흥군 장동면 산동마을 ▲보성군 보성읍 삼산마을 ▲해남군 계곡면 태인마을 ▲담양군 봉산면 방죽마을 ▲무안군 삼향

면 맥포마을 ▲해남군 산이면 대진마을 ▲영광군 묘량면 효동마을 ▲영광군 영광읍 월평마을 ▲영광군 군남면 육창마을 등이다.

선정된 행복마을은 마을 정비계획과 한옥 신축 설계도서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남도 한옥위원회에서 심사해 최종 확정하게 되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마을에 한옥 1동당 4000만원 안팎의 보조금과 3000만원의 응자금을 지원하며 마을에는 공공기반시설 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한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행복마을 79곳

을 지정한 뒤 1083개동의 한옥을 짓기로 확정하고, 현재까지 607개동을 완공했고 476개동이 공사중이거나 준비중이다.

이런 가운데 외지인 426명이 행복마을로 전입해 오는 성과를 거두고 평화된 농어촌마을이 모처럼 젊은이들의 활기로 넘쳐나고 있으며, 외지인들의 전입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자원국장은 “우수한 한옥의 보급확산을 위해 평형별, 유형별로 설계도서를 작성해 보급할 계획”이라며 “건축비 절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한옥이 도내 곳곳에 건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 순천시 8년 연구 개발 ‘천매’

#### 매실 품종 보호권 획득

순천시가 개발한 매실 ‘천매’ 품종이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다.

순천시는 지난 2008년 4월 국립 종자원에 ‘천매’에 대한 품종 보호를 출원한 결과 2년간의 출원 품종 현지 심사를 거쳐 지난 9일 품종 보호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품종 보호권 획득으로 향후 14년간 천매 품종에 대한 종묘의 수확율 및 수확률로부터 직접 제도된 산물에 대해 권리를 독점하게 된다. ‘천매’ 품종은 지난 1992년부터 2000년까지 8년간 매실 품종 유통 연구 결과 개발됐으며, 대파종(과중 무게 29.8g)으로 이 상품성이 높고 10a당 수량이 900kg에 달한다.

일반 매실 품종은 흙병에 약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기자 데스크

최근 광양시 일부 공무원들이 도덕 불감증 행위가 잇따라 터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중앙부처 공직자 비리가 더지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인 사정과 기강학습을 주문하고 나선 터에 광양시 일부 공직자들의 주태가 잇따르고 행정 난맥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 추태·비리…기강 풀린 광양시

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 위생 처리사업소 계량기 담당직원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명절 때 선물과 상품권을 받았다가 급기야 폭행 사건으로 비화돼 경찰에 의해 현재 수사중에 있다. <동부취재본부 기자>



박영진은 “민선 5기 들어 3선 시장이 조직 통제와 장악을 느슨히 한

때문 아니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성웅 시장은 10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 대내외 정치인과 정부, 시의회 관계를 재설정해 뚝심의 정치력을 지금부터 발휘해야 한다.

또한 광양시 허행정도 일관성을 잃어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시는 지난해 2월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에 세워지는 광양 탕크터미널 건축허가를 했다가 같은해

/pyi4079@

## 대인동삼일부동산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휴(011-602-2532)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 남구 대촌부근 주거지역

●남구 압총동 한일베라체 주변 대로변 인근 토지 1990㎡(602평). 일번주거지역. 이스플트포장도로 접한. 매매가 3.3㎡당 95만원. (슬레이브 주택 30평 포함)

### 소태동 잡종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아이아파트 부근 잡종지 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역 약 70평 별도 이용 가능.

### 완도 득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득섬 매매 .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번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 365,000원)

###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44㎡(80평). 매매가 3억.

###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혜산리 도곡면소재자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한. 매매가 3.3㎡당 16만원. 농장 및 개간 가능 임야 구함.

### 농장 및 개간 가능 임야 구함

●무인 핵평 영광·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간 가능한 임야도 좋음. 10,000㎡ ~ 70,000㎡

###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 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 010-3616-8698. 062-233-2222

## 중앙공인중개사

### ♣.상가건물

☆.운암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억원

월세1천3백만원 매매가 20억원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광송간 대로변 운전자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